

내수부진·경기악화 ... 팍팍한 서민 가계

KDI 발표 올 경제전망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에 따르면 환율상승에 의한 부양효과 덕에 우리 경제성장률은 4.8%로 지난해(5.0%)보다 다소 하락하는 데 그치지지만 내수는 크게 위축돼 체감경기가 훨씬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올 성장 - 서민 생활고 가중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 4.5%에서 3.0%로, 설비투자는 7.6%에서 2.4%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성장률이 지난해(5.0%)와 비슷한 4.8%를 유지하는 것은 수출이 내수 위축을 만회해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허울뿐인 성장 ... 고용사정은 더 나빠져

물가안정 중요 ... 추경보다 감세 정책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꺾일 것으로 전망됐던 수출(금액기준) 증가율은 미국경제의 하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달러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지난해 14.2%에서 올해 18.4%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내수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급등에 의한 부정적 효과와 최근 환율상승에 의한 부양효과와 악영향을 모두 받아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지난해(3.9%)의 절반에 가까운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에 비해 체감경기는 형편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2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28만2천명)보다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5%에서 올해 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체감경기 악화를 점할 수 있는 지표다. <경기침체, 내수에서 가시화=KDI는 최근 우리 경제의 완전한 둔화가 내수축면에서 가시화되면서 고용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미국 경기의 둔화에 불구하고 대 개도국 수출의 호조,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여전히 15~2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 및 건설 투자가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수출경기에 의존하는 제조

업부의 고용은 큰 변화가 없지만 소비에 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증가를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4·4분기 이후 물가안정 목표범위(3.0±0.5%) 이상으로 급등했는데, 최근 환율상승이 전반적인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물가안정이 우선 ... 추경보다 감세”=KDI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와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황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미국 경기의 둔화에 불구하고 대 개도국 수출의 호조,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여전히 15~2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 및 건설 투자가 부진한 모습이다.

KDI는 현 경제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물가라며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통화정책을 조심스럽게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립뉴스

건설 등 10만 하도급업체 공정위,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단가인하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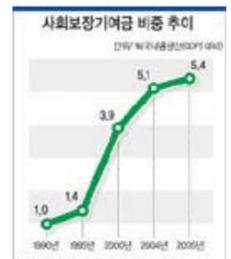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조, 용역(서비스), 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조·역업의 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6만5천개, 건설업의 수급사업자 3만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매출액 하한선을 제조업의 경우 작년 7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리고 용역업도 53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 부담을 줄였다.

공정위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를 조사한 뒤 이 업체와 하도급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확인조사를 하고 건설업은 수급사업자만 조사하기로 했다.

기간은 제조·용역업종의 원사업자가 다음달 3일, 건설업 수급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제조·용역업종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7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연립뉴스

사회보장기여금 급증 GDP 대비 5%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5%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2일 조세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의 비중은 5.4%로 전년(5.1%)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1990년 1%에서 1995년 1.4%, 2000년 3.9%, 2004년 5.1%, 2005년 5.4%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 분류상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1990년을 전후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본격 도입된데다 도입 이후에도 보험료를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사학연금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됐고,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됐다. 산재보험 역시 1989년에 개정되면서 적용대상 및 보험급여 수준이 대폭 확대됐다.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사회보장기여금(공적연금+사회보험) 지출은 1990년 연평균 18만원에서 1995년 39만2천원, 2000년 90만원, 2004년 151만 9천원, 2005년 159만원 등으로 15년새 무려 8.8배 가량 늘어났다. <연립뉴스

정부가 초과공사비 보증 SOC 민간 투자 활성화

정부가 민간업체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과비용을 위한 차입에 대해서도 보증해준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산업기반시설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정부발주사업 시행자의 초과비용을 위한 차입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계속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업체가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보다 많은 SOC 건설을 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낮아지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사업기간이 긴 SOC 건설을 할 때 정부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 책정의 어려움 등에 따라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건설업체는 예산 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에서 돈을 빌려 공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공기단축에 따른 이익은 정부와 민간업체가 공유하게 된다.

재정부 조분한 민간투자제도과장은 "내년의 계속비 사업을 3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초과비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초과비용을 유동하기 위한 혜택으로 차입에 대해 보증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뉴스

韓 - EU FTA 7차 협상 원산지·개방안 절충 착수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을 열어 원산지과 상품 양허(개방)안 등 정점을 놓고 본격 절충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이해민 우리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건물에서 분과협상 없이 수석대표간 접촉을 갖고 양측간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열린 4개월간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원산지와 비관세 장벽 등의 진행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EU측은 'made in EU' 원산지 표기방식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나 우리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지적재산권 분야는 샴페인, 코냑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남아 있지만 별 쟁점이 남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립뉴스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 大檢 중수부, 수사 나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우선하던 사정(公正) 수사의 방향을 틀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재 전국 20여개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순 검사장)는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이 당면과제라고 판단,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적책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기업 비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인사 비리

및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담합 입찰과 불법하도급 ▲업무알선 비리(브로커) 등이다.

국가보조금 비리는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사용이나 횡령 ▲담당 및 감독 공무원의 뇌물수수, 보조금 편취 목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부당지급 관련 직권남용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1월 이후 공기업·보조금 범죄 31건에서 관계자 8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손실을 확인해 몰수·추징 보전절차를 취했다. 또한 대검이 수집한 중요 공기업의 비리 첩보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연립뉴스



세련된 디자인 '패션다리미' 필립스전자가 12일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야외광장에서 감각적인 디자인의 신제품 패션다리미 출시행사를 갖고 있다. 이 다리미는 웨딩시즌에 맞춰 한정판이다. <연립뉴스

필립스전자가 12일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야외광장에서 감각적인 디자인의 신제품 패션다리미 출시행사를 갖고 있다. 이 다리미는 웨딩시즌에 맞춰 한정판이다. <연립뉴스

'일자리 창출' 대기업 ↓ · 中企 ↑

지난 10년간 대기업 130만개 줄고 中企는 240만개 늘려

최근 10년간 대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130여만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부문에서 고용이 240여만명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위상지표'에 따르면 외환위기로 일자리가 감소한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6~2006년 중소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매년 늘어나 지난 10년간 모두 247만여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부문에서는 고용이 130만여명 줄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와 전체 고용의 87.5%를 차지했다. <연립뉴스

체 수의 99.4%, 고용의 75.9%, 전체 부가가치의 51.1%를 담당했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수의 93.6%, 연구원 수의 57.6%를 중소기업이 차지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2004~2005년 9.0%P 이상 벌어진 이래 지난해 5.0%P로 양극화 현상이 여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며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경제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업

주택연금, 늘려 받을 수도 줄여 받을 수도

개인사정 따라 '증가형'·'체감형' 등 선택 가능

13일부터 주택연금이 가입하는 고객은 월 수령액을 해마다 늘려 받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처음에 높은 금액을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체감형' 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상품 선택 폭을 한층 넓히기 위해 연금 지급방식을 이처럼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선보이는 연금 증가형 상품은 평생 동안 고정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월 수령액

이 매년 3%씩 증가하는 형태다. 대신 가입초기에는 현행 방식보다 월 수령액이 적으며, 대략 10년 정도가 지나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가진 75세 가입자는 현행 방식은 평생 133만 원의 고정액을 받지만, 증가형 옵션은 가입연도에 106만원부터 시작해 5년후 123만원, 10년후 143만원, 15년후 165만원을 수령한다.

현행 방식은 평생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월 수령액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는 지력을 받아왔다. 공사는 또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체감형 옵션도 이런 하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경우 매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5~10년마다 한번씩 줄여나가는 형태로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개인의 경제사정이나 건강상태,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월 수령액을 평생 동안 고정으로 받든지, 점점 늘러가거나 줄어받든지 상품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연립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삼성전자서비스*GCA	삼성전자서비스 A/S연차노예 교육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0	062-971-4640
센트럴관광호텔	호텔서비스 정규직 사원모집(호텔서비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3	062-383-7575
연수당분자주	주류생산부서 기계조작 및 단순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14	062-943-3788
튜닝아이	생산부 도색기술 신입,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372-9002
동부회계 광주 고객센터팀	[광주TM센터]본사직영 제3차 TM사원(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220-8500
청연현의원	운동학과 및 스포츠관련학과 공모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222-0833
㈜유원엔지니어링	공무 및 사무실 업무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6	062-573-5973
㈜하이테크	자동차 부품 조립 관련 종사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16	062-943-6508
㈜지이오하우스	폭스버겐 광주 전시장에서 본부장님을 모십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6	062-351-9500
한국인포데이타*전남본부	광주 스키(리)프 고객센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6	062-360-0503
㈜유원엔지니어링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7	062-953-6343
포드자동차광주서비스	관리사무원 구함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7	062-515-1112
㈜삼성건설기계	[광주]건설 기계 정비(굴삭기) 정비사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19	031-378-2140
경동택배	택배회사 배달업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20	011-646-428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